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0)

사역 업데이트: 2026년 1월

잃어버린 슬리퍼와 선한 사마리아인

어느 저녁, 독일에서 온 친구에게 텔아비브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몇 명의 젊은 남자들이 한 사람을 차도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근처 쓰레기통에서 큰 금속 선풍기를 집어 들어 전력을 다해 그를 내려쳤습니다. 선풍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남자는 비틀거리다 연석 쪽으로 넘어져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고통에 압도된 채 말입니다.

가해자들은 달아났고, 남자는 어두운 가로등 아래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들었고, 싸움을 보았고, 길가에 쓰러진 남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어떤 이는 겁에 질려 있었고, 어떤 이는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어색하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치 비유 속 장면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차들을 멈추게 하고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마흔 살쯤 되어 보였고, 오랫동안 거리에서 지낸 사람처럼 더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아마도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차분하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슬리퍼를 잃어버렸어요.”

공격 중에 벗겨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찾아 하나는 금방 발견했고, 다른 하나는 한참 후에야 찾았습니다. 슬리퍼를 가져다주자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슬리퍼를 제 발에 신겨 주세요.”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필요한 실질적인 일을 했지 않던가. 그래서 그의 발에 슬리퍼를 신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 발 옆에 가방이 있어요. 가져가세요.”

낡고 더러운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길을 건너도록 도왔습니다.

“가방을 주세요.”

그가 말했고, 저는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하려던 참이었는데—그가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들어봐요… 돈 좀 주세요.”

말투는 대담했고 무례하기까지 한 느낌이었습니다.

“현금이 없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흥얼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가 밤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도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겠지…”

사람을 돕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각자 도움에 대한 기대와 ‘도움이란 어떤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도 똑같이 나아갑니다—아주 구체적인 요청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슬리퍼', 즉 가장 시급해 보이는 문제에만 시선을 둡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도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세르게이 (아비브 사역, 부디렉터)

소식 및 기도 제목:

저희는 최근 브엘세바 재활 센터에 새로운 입소자 *오렌(가명)이 합류하게 된 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그는 25년이 넘는 세월 전 아내와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이 해체되었고, 그 결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며 술을 끊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매번 재발로 끝났습니다. 결국 이 싸움을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친구들의 권유를 따라 아비브 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팀과 연결되었고, 현재 브엘세바 재활 프로그램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오렌은 진정한 변화를 깊이 갈망하며,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켈론에서 진행 중인 신규 이민자 및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역도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질적인 도움과 식료품 지원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매우 은혜로운 크리스마스 및 새해

기념 행사를 개최했으며,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열렸습니다. 정기적인 활동, 사교 모임, 아웃리치 행사 등을 통해 이 사역을 더욱 발전시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사역을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자유롭게 저희와 나눠 주세요!

주님의 종 된,

도브, 올라 비카스와 아비브 미니스트리 스태프



자세한 정보와 후원을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www.avivministry.com



Aviv Ministry Israel



Aviv Ministry



avivministry

dovbikas@gmail.com